

# 한화, 미국서 석유 개발 본격화

## 무역부문, 캘리포니아 유전 지분 매입 ... 광구 운영기업 설립도

한화가 석유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 무역부문은 4월15일(현지시각) 미국 Trio Petroleum 등이 보유한 캘리포니아 육상광구 Lynch Canyon의 지분 50%를 사들였다고 4월16일 발표했다.

한화는 10월15일까지 광구 운영권도 인수함으로써 원유를 직접 생산하게 되며 별도의 광구 운영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유전 인수는 한화의 현지법인이 직접 2900만달러의 자체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Lynch Canyon의 가채 매장량은 1040만배럴로, 하루 5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추가 개발을 통해 하루 2900배럴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2009년 7월 미국 텍사스의 육상 생산광구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4년 전부터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과 예멘 4개광구 개발·탐사,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에 참여하는 등 북미를 중심으로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2015년 자체 생산량 기준 하루 1만배럴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6>